

“해맑은 아이들의 집”

글 | 김명희(대안가정운동본부 사무국장)



지난 4월 11일 대구시민회관에서는 1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름다운 공연이 펼쳐졌다. 대구·경북지역에

서 활동 중인 중견음악가들과 대안가정운동본부 홍보대사를 수락한 가수 박미경 씨가 출연하여 열연한 이번 콘서트는 출연진과 관객이 하나가 되어 환호한 아름답고 뜻 깊은 자리였다.

지난해 개최된 「대안가정과 함께하는 사랑의 콘서트」가 시민들에게 대안가정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대안가정 「해맑은 아이들의 집」 설립을 위한 LOVE CONCERT' 는 대안가정마저 찾기 어려운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지난 4년간 35명의 아동에게 대안가정을 찾아주었다. 그중 16명의 아동은 친부모의 품으로 돌아갔고, 19명의 아동은 아직도 대안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며 늘어나는 부채로 인해 나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가정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한 아이를 맞이하여 보살펴주는 대안가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대안가정에서 아이를 보살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약속된 위탁기간을 넘기고도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랜 기간 동안 보살펴야 할 아동이나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대안가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의 대안가정 「해맑은 아이들의 집」은 다섯 명의 아동과 선생님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공동생활가정이다. 바로 대안가정운동본부의 탄생에 단초가 된 「해뜨는집」과 같은 소규모 아동그룹홈이다.

사실 대안가정 「해맑은 아이들의 집」은 2002년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시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공동생활가정이 미인가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행정당국에서 승인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의 아동보호정책이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선화하면서 200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공동생활가정이 소규모시설로 명시되었고, 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지역사회의 후원으로 운영되던 미인가시설들에 대한 양성화정책의 일환으로 조건부시설로 신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일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다. 또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사업의 물량 중 10%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동생활가정에 배정해 저렴한 보증금으로 입주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들이 실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던 공동생활가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기존 공동생활가정은 거의 누릴 수 없다.

1인 인건비와 관리비조로 연간 2천만원 정도 지원되는 운영비는 기존에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국한되어 지원되고 있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사업은 서울만 30개소 공동생활가정이 입주했을 뿐 지역에서는 단 한 가구도 입주하지 못했다.(2006년 3월말 현재)

「해맑은 아이들의 집」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의 견고한 벽을 실감하였다. 미비한 지원이지만 그나마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3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은 법인'에 한해서 주어지는 혜택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가정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다. 잠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대안가정에서 보살필 것이다. 그리고 영구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우리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 「해맑은 아이들의 집」을 준비하고 있다. 2002년 시민의 힘으로 대안가정운동본부를 설립했듯이 또 다시 시민의 힘에 의지하여 「해맑은 아이들의 집」을 만들어갈 것이다. †